

韓·日文學 特질론 비교

조동일

1. 논의의 방향

한국과 일본에서 문학사 서술과 관련시켜 자국 문학의 특질에 관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고, 두 나라 문학의 특질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¹⁾ 두 나라 문학의 특질 자체를 근거 있게 검토해 서로 비교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특질 대신에 특질론을 문제로 삼고, 문학사 서술에서 부각된 특질론을 거론하기로 한다. 자국 문학사 서술의 성과나 그 이론은 한 나라 학문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서 학풍 비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욱 두드러져 서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문학의 특질론을 근접시키는 적절한 관점을 찾으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동아시아문학사의 총괄적인 이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꾀차 유익하다고 믿는다.

필자는 최근에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이라는 책을 탈고했으며, 1993년 1월까지 출간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사 서술과 전개를 비교해 논하고, 동아시아문학사를 통괄해서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텁색한 내용이다. 제 1장에서는 문학사 서술의 경과를 검토했다. 먼저 유럽 각국문학사의 전례를 살피고, 문학사를 처음 마련한 시기의 선후

1) 이 글은 임진왜란 4백주년을 맞이해서, 1992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東京에서 열린 “한·일문화 포럼, 한·일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원래는 없던 주를 추가한다.

에 따라서 일본문학사, 중국문학사, 한국문학사, 월남문학사 순서로 서술의 경과와 문제점을 고찰했다. 제 2 장에서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을 작업의 시기와 동기, 민족문학사의 의연과 내포, 문학사·사상사·사회사의 관계, 시대구분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제 3 장에서는 동아시아문학사를 통괄해서 서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통된 시대구분의 시안을 제시하고, 고대문학, 중세전기문학, 중세후기문학,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근대문학의 전개를 비교해 고찰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문학사 서술의 전통이 서로 아주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문학사 서술을 통해서 일본 문학의 특질을 밝히는 것을 지속적인 과제로 삼아 왔다. 三上參次·高津鉢三郎의 《日本文學史》(1890), 大和田建樹의 《和文學史》(1892), 芳賀矢一의 《國文學史十講》(1899) 등의 초기 저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문학 특질에 대한 관심이 근래의 업적으로서 특히 커다란 비중을 가진 久松潛一 外, 《日本文學史》(1955~60), 加藤周一의 《日本文學史序說》(1975), 小西甚一의 《日本文藝史》(1985~)에 이르러서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문학 특질 해명이 문학사 서술의 과제라고 여기지 않고, 한국문학사 전개 과정에 어떤 보편성이 있는가 찾는데 힘썼다. 최초의 업적 《朝鮮文學史》(1922)의 저자 安廟은 민족의식을 각성하는 사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 외래문화를 수용해서 민족문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증대해 온 과정을 찾아내 평가하고자 했다. 그래서 근대 민족문학론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한 의의가 있다. 한국문학의 특질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일본 학제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시기에 더러 나타났으며, 金思燁의 《朝鮮文學史》(1948)에서만 문학사 서설에 포함되어 있다.

趙潤濟는 《國文學史》(1949)에서 문학은 민족정신의 구현이라고 하면 서도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國文學概說》(1955)에서 이미 제기된 논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문학의 특질에 관해 자기 견해를 밝혔지만, 《韓國文學史》(1963)라는 이름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면서 특질론

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근래에는 한국문학의 특질에 관한 산발적인 논의마저도 거의 없어졌다. 일본의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가 학계에 등장하면서 보편적 이론 취향이 크게 확대되었다. 필자는 《한국문학통사》(1982~86)에서 한국문학을 근거로 문학사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 세계문학사 서술에 널리 적용하겠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문학의 특질을 찾기 위해 힘쓰고, 한국에서는 한국문학을 보편적 원리 정립의 근거로 삼는 학풍의 차이는 연원이 오래 된다고 생각한다. 불교나 유학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 때부터, 한국에서는 일반 원리에 대한 논란을 활발하게 벌이고, 일본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중요시해온 전통이 있다. 한국의 선비는 비록 草野에 묻혀 있어도 임금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天下萬事에 대한 거시적인 고찰을 하면서 正名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幕府에서 지정해 준 특정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축적하던 기능인 집단이 서양 학문의 수용에서도 재간을 발휘한 점이 서로 달랐다.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일본의 학풍이 한국의 전통을 변질시켰으나, 대응 작용이 또한 만만치 않아 피해를 줄였다. 식민자 통치에서 해방되고자 투쟁한 경험이 세계사의 보편적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했다.

일본과 한국의 학풍이 얼마나 다른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小西甚一은 《日本文藝史》서설에서 “일본문예의 특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학사 서술의 “중착점”이라고 했다.²⁾ 필자는 《한국문학통사》 머리말에서 “여러 문명권 많은 나라의 문학이 각각 그것대로 특수성과 함께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찾아내 세계문학사의 전체적인 전개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³⁾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 하고 말 것은 아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을 매개로 해서 보편성을 인식하고,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특수성을 찾아야 한다.

특수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의 학풍에 한국 학계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문학의 특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본에서는 한국

2) 제 1권, 東京: 講談社, 1985, p. 30.

3) 제 1권, 서울: 지식산업사, 1989 제 2판, p. 5.

에서 문학사의 보편성을 찾는 작업에 자극을 받아 일본문학사의 전개를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 피차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런 작업을 함께 해야 동아시아문학사에서 한·일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세계문학사에서 동아시아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정당하게 인식할 수 있고, 서양중심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세계문학의 일반이론을 재정립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다.

2. 일본에서 한 작업 검토

일본문학 특질론은 오랫동안 일본정신을 신비화하는 국수주의와 깊이 연결되고, 이웃 나라의 문학과 그 근거가 된다는 민족성을 고의로 폄하하는 침략주의 발상을 수반했다. 일본인은 “萬世一系”的 신성민족이라 는 주장을 일본문학사 서술에서 앞세우던 시기에, 古城眞吉의 《支那文學史》(1897)와 笹川鍾郎의 《支那文學史》(1898)에서 중국문학사를 처음 서술하면서, 보수적이고 나태한 중국인은 민족성이 나빠 멸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 점은 중국인 謝六逸이 《日本文學史》(1929)를 쓰면서, 일본문학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중국인의 편견을 시정하려 한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일본인이 한국문학사는 쓰지 못했으나, 高橋亨은 민요를 들어 한국문학의 특질을 논하면서, 哀調가 혼하고, 유교 윤리에 구속되고, 향락주의에 빠진다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열거했다.⁴⁾ 당대의 한국인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조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민족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반대의 지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무리한 주장을 일삼는 폐단이 있고, 문학의 실상에 대한 근거 있는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대에 잘못 뒤틀린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한국문학 특질론 자체를 멀리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렇지만, 일본문학 특질론이 근래에는 국수주의와 침략주의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久松潛一은 “理念”이라고 일컬은 미의식의 교체를 근거로 문학사의 전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 加藤周一

4) 高橋亨의 한국민요론을 최철·설성경 편, 《민요의 연구》(서울: 경음사, 1984)에 모아 놓았으므로 쉽게 참고할 수 있다.

이나 小西甚一은 일본문학의 특질이 어떤 신비적인 원리를 떠나 문학의 존재 양상이나 문학사 전개 과정에서 확인된다 하고, 겸중 가능한 사실을 그 증거로 삼고자 했다. 더구나 加藤周一은 국수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小西甚一이 문학사 이해에 문학 이외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여 불필요한 선입견을 배제한 것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립된 일본문학 특질론에 대해서 한국의 학계에서 과거와는 다른 학문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의 작업을 일본문학의 실상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은 일본문학 전공자의 소관이지만, 그 방법과 결과가 한·일문학 특질 비교론을 위해서 어떤 의의가 있고, 한국문학 특질론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한국문학 전공자가 할 일이다.

加藤周一은 일본문화의 양상과 관련시켜 문학의 특질을 네 가지 들었다.⁵⁾ 첫째, 일본인은 구체적·비체계적·감정적 언어를 구사하므로 철학이 발달하지 않고, 문학이 철학을 대행한다고 했다. 둘째, 일본 역사 및 문학사에는 신·구가 교체되지 않고, 새 것이 낡은 것에 첨가되어 변화가 누적된다고 했다. 셋째, 일본어는 존비법이 분화되어 있어 사회 상황의 특수한 국면에 국한시켜 써야 하므로, 시 형식이 단형이라고 했다. 넷째, 일본사회는 신분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어느 작가든지 자기 신분층의 생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小西甚一是 문학 자체로 논의를 한정시켜 일본문학의 특질을 세 가지 들었다. 첫째, 짧은 형식을 좋아하는 “短章的” 특징이 있다고 했다. 둘째, 대립이 첨예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서사시가 없다고 했다. 셋째, “主情的”이고, “內向的”이며, 그 때문에 비극이 없다고 했다.

일본문학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문학을 다른 나라의 문학과 비교해야 한다. 그래서 加藤周一은 중국·서양문학을, 小西甚一是 한국·중국·서양문학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加藤周一은 가까이 있는 한국문학은 고려하지 않아 논의가 미진하므로 보충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한국문학 특질 해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겸중될 수 있는가 검토하기로 한다. 小西甚一是 한·일문학의 특질을 비교하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했으므로 그 점에 관해 먼저 고찰해야 하고, 문학 자체에서

5) 上, 東京 : 筑摩書房, 1991 23쇄, pp. 6-33.

논거를 구한다 했으므로 문학이론적 입각점까지 드러내서 살피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加藤周一이 든 일본문학의 네 가지 특질 가운데 첫째 특질은 한국문학에서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문학이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점이 문학이 철학의 구실을 대행한다는 일본의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이 다소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양립한 중국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李奎報·金時習·朴趾源은 한국문학사의 주역이면서 한국철학사에서도 대단한 구실을 했다. 필자는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1992)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후의 사정까지 들어 자세하게 밝히고, 한국문학사 연구와 한국철학사 연구가 서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加藤周一이 두번째로 든 특질도 한국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문학은 기본 양상이 몇 차례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상사나 사회사에서의 전환이 함께 일어나, 시대구분에 관한 종체적인 이론을 설명하게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일본어에는 존비법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시 형식이 단형인 것이 셋째 특질이라고 했는데, 한국어도 존비법이 발달되어 있는 점은 일본어와 마찬가지이나 한국의 시 형식은 결코 단형이지 않으므로, 존비법과 시 형식 사이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네번째로 든 특질도 한국문학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 여러 계급의 다양한 삶을 한 작품에 복합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상층 시인이 농민의 처지에 공감하는 민요시를 짓고, 하층의 광대가 유식한 표현을 차용해 풍자의 효과를 높인 것이 그 좋은 예이다.

小西甚一은 한국문학을 직접 거론했는데, 사실과 어긋난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일본문학은 단형을 특징으로 하고, 서양문학은 장형인 데 비해, 한국문학은 중간형이라 한 견해가 타당하지 않다. 천 8백여 句나 되는 漢山居士의 『漢陽歌』는 그 점에서 예외라 하고, 장시라도 형식은 “3+4調”的 연속일 따름이라고 한 말은⁶⁾ 둘 다 잘 못되었다. 『漢陽歌』보다 몇 갑절 긴 작품도 여럿 있어서, 한국의 歌辭는 세계 어디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장시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율격이 “3+4調”

6) 1, p. 60.

만이 아니고, 다양한 변이가 있어 상당히 자유롭다. 한국의 고전소설에도 대장편이 혼하다. 《玩月會盟宴》은 180책이나 되고, 현대 단행본으로 12권 6천면 정도 되는 분량이다. 몇백 책씩 늘어나는 연작도 있다. 국문문학에 그런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한시에도 중국 작품보다 장편인 것이 적지 않다.

한시로 서사시를 쓰려고 줄곧 노력한 것은 한국에서만 보이는 현상인데, 하층에서 구전되는 故事巫歌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小西甚一은 李奎報의 《東明王篇》이 서사시라는 견해는 자기가 소개한 “英雄詩”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판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⁷⁾ 그런 발상은 고대 회합의 서사시를 모형으로 삼아 서사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서양의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계 서사시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는 어긋나므로 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한국의 구비서사시 서사무가와 판소리, 기록서사시 《東明王篇》, 《龍飛御天歌》 등을 세계 여러 곳의 유사한 사례와 광범위하게 비교해 서사시의 개념, 분포, 변천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시 수립하고, 서사시와 소설의 관계를 재론하는 작업을 《한국문학과 세계문학》(1991)에서 시작했다. 그 일부를 1991년 8월에 일본 東京에서 열린 국제비교문학회에서 발표했다.

小西甚一은 한국문학은 일본문학처럼 “主情的”이고 “內向的”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문학에서는 중국문학처럼 “主意的”이고 “主智的”인 성향도 보인다고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한국문학의 기본 특질은 우선 구비문학에서 찾아야 한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찍이 高橋亨은 한국민요는 유교윤리에 구속되는 폐단이 있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언표를 실상에 맞게 바꾸어 놓으면 윤리의식이 두드러진다는 말이다. 민요뿐만 아니라 설화, 탈춤, 판소리 등에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상층의 권위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가 혼하다. 전국 각처에서 일제히 수집한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2권의 설화를 모두 분류한 《韓國說話類型分類集》(198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설화에는 賢愚와 善惡의 表裏가 서로 다른 유형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구비문학의 특성이 국문문학에서도 나타나, 시조, 가사, 소설

7) 같은 책, p. 57, 61.

동이 윤리적·사상적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한문학 또한 공통된 주제를 놓고 국문문학과 논란을 벌이며, 민요와 설화를 적극 받아들여 樂府詩와 野談을 풍성하게 이룩했다. 丁若鏞의 시와 朴趾源의 소설이 그 정점을 이루었다. 사회풍자가 구비문학·국문문학·한문학에서 한결같이 적극적인 구실을 해서, 한국문학은 그 점에서 일본문학이나 중국문학과 크게 다르다.

그런데 小西甚一이 한국의 국문학은 일본문학과 같고 한국의 한문학은 중국문학과 같다고 한 견해는 사실 인식이 불충분해서 생긴 실수만은 아니고, 사실 인식과 따로 노는 관념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반도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문학가 없고, 중국문화와 일본문화의 특징을 절반씩 지니고 있다고 한 식민지 시대의 억설을 스스로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학통사》를 안내자로 삼아 한국문학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에서 하는 작업 제시

加藤周一과 小西甚一 두 사람 모두 일본문학에 끼친 외국의 영향을 중요시하면서, 중국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보편적인 사조가 일본에서 특수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데 힘쳤다. 그런 관점은 일본문학사의 전개에는 보편성이 없다는 전제에 근거를 둔다. 小西甚一은 일본문학사를 한국문학사와 중국문학사의 경우와 비교해 동아시아문학사의 시대구분에 관해서 자기 소견을 제시했지만, 보편성은 영향을 주는 주체인 중국문학에서나 인정된다고 여겨 서로 대등한 비교를 하지 못했으므로, 문학사의 공통된 전개가 확인될 수 없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문학통사》에서 찾은 시대구분의 원리를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사에 적용해 타당성 여부를 검증했다.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한국문학과 월남문학의 공통된 전개를 특히 중요시하고, 중국 안의 여러 소수민족도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학사를 이룩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전체적인 범위에서 귀납적 일반화를 피했다. 한국문학사에서 도출한 시대구분의 원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문학사의

전개를 널리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서양중심주의의 편견을 시정한 세계문학사를 새롭게 서술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 3 세계 문학연구입문》,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에서 시작한 그런 후속작업을 계속 확장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국 문학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판정하려는 의도는 버려야 한다. 우열의 근거가 민족성에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철저히 불식해야 한다. 공시적인 비교를 하려 하지 말고, 문학사 전개의 서로 같고 다른 점을 해명해야 한다. 문학사 비교에서도 어느 쪽이 발전에 앞장서고, 영향을 주었던가 가려 등급을 판정하려 하지 말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문학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공통된 전개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 세계문학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공통점을 매개로 차이점을 확인하고, 보편적인 원리가 특수하게 구현되는 양상을 다양하게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한·일 문학 비교론을 바람직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 확인이 특히 긴요하다.

새로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에서 중국·한국·일본·월남문학사를 함께 포괄하는 동아시아문학사의 공통된 시대구분의 시안을 제시했다. 고대문학, 중세전기문학, 중세후기문학, 증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근대문학이라고 이름 지은 공통된 시대가 각국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났던가 두드러진 사례를 들어 고찰하는 작업까지 해보았다. 그 작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는 없으므로, 공통된 시대구분을 매개로 한·일문학의 특질 비교를 새롭게 시도한 내용만 일부 간추려 토론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고대문학의 시기에 한국에서는 國中大會라는 이름의 나라굿을 하고, 전국서사시를 노래한 전통이 “영웅의 일생”을 갖춘 후대의 敏事巫歌로 이어진다 하겠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층의 전국신화가 문헌에 차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하층의 구전과는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으로 힘써 밝혀야 하겠지만, 서사시 전승이 있고 없는 차이가 그래서 생긴 것만은 지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한문을 共同文語로 받아들여 증세문학을 이룩하면서, 한국에서는 廣

開土大王陵碑를 위시한 금석문으로 국가의 위업을 자랑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 어렵다. 伊豫道後溫湯碑文이 있으나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자를 빌어 자국어시를 짓고 기록하는 데 일본에서 더욱 열의를 가져 《萬葉集》을 이룩했다. 한국의 《三代目》은 전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新羅鄉歌는 얼마 되지 않는다. 상하층의 유대가 한국에서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공동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되는 전통이 일찍부터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세후기에 이르러서 중세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는 李奎報를 선구자로 한 士大夫 문인들이 민족적 차각과 현실 인식에 기여하는 한문학을 개척하고, 禪僧들의 禪詩는 고정된 규범을 파괴하고 표현을 쇄신하는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五山의 禪僧들이 정통 한문학의 수준을 높이면서 민족적 성향을 갖추고, 또한 禪詩도 개척하는 다면적인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는 士大夫와 禪僧이 새 시대의 노래인 時調와 歌辭를 창안했는데, 일본에서는 和歌가 지속되었으며 중세후기로의 전환이 미의식의 변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국문학사에서의 새로운 문학갈래 출현과 일본문학사에서의 미의식 변화가 문학사 시대구분을 위한 일차적인 징표로서 서로 상응하는 의의를 가진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민족문학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학사상을 마련하면서, 한국에서는 민요를 국문시가로 물론 한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上下의 情이 통하게 하는 것을 특히 긴요한 과업으로 삼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른 시기 고전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난 “大和心”을 자국어문학에서 한층 빛내는 것이 가장 값지다고 했다. 한국의 實學派 洪大容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內外를 구분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해 민족문화를 인식하는 보편적 이론을 수립하고, 일본의 國學派 本居宣長은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한 서로 다른 학풍이 오늘날까지 바로 이어지고 있다. 신분제가 유동적인 한국에서는 행세하기 어렵게 된 士大夫 문인이 이름을 숨긴 채 上下·男女의 관심

8) 小西甚一의 문학사에는 이름만 나와 있다.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東京: 角川書店, 1984)에서는 “伊豫國湯岡側碑”라 하면서 전문을 소개하고 고찰했다.

사를 널리 포괄하는 소설을 장황하게 써서 대부분 필사본을 통해 유통 시킨 것과는 다르게, 신분제가 고정된 일본에서는 町人의 일원인 직업 작가가 자기 이름을 상표로 삼고 町人 생활을 잘 다루어 인기를 얻으려 한 소설을 인쇄해 주로 자기 계급 독자들에게 판매했다. 한국에서는 신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일본에서는 町人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근대화가 추진된 사실이 문학의 변모와 밀착되었다.

일본에서는 근대문학은 서양문학의 이식이라 하고, 일본이 이웃 여러 나라보다 앞서서 그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자랑한다. 일본문학의 전통은 의해사조를 특이하게 굳결시키는 소극적인 구실이나 했다 하고, 자연주의 소설을 私小說로 바꾼 것을 그 좋은 본보기로 든다. 한국에서도 일본을 따르면서 서양문학을 이식하겠다는 시도가 거듭되었으나, 한국문학의 전통을 계승해 식민지사회 비판의 효과를 높인 韓龍雲이나 蔡萬植이 더욱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절수가 고정된 단형시의 구속을 거부해야 자유시를 이룩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자유시에는 전통적 율격에서 이미 허용되던 변형을 다채롭게 확장한 것이 적지 않다. 서사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것도 오랜 전통에 근거를 둔다. 민요·탈춤·판소리의 창조력을 오늘날의 문학에서 되살려 서양 전래의 규범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近世”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시대구분은 그 기간 동안에 근대문학을 스스로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대폭 계승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서양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서양과 비슷한 발전을 보인 일본 역사의 특수성을 “近世”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한국에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세계문화사의 보편적인 단계로 이해한다. 서양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권의 여러 민족도 각각 자생적인 변화를 거쳐 서로 비슷한 시기에 그 단계에 들어섰으나, 서양의 세계 제패 때문에 문학사의 진행 방향이 왜곡된 것이 보편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서양문학의 이식으로 근대화를 삼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창조력을 되살리는 공동 과업의 이론적 지표를 한국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도색하고 있다.

한·일문학 특질 비교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이 자리에서 길게 펼 수는 없다.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에서 이미 다룬 내용의 윤곽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그 책을 읽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응이 되는 저술을 내놓으면 토론이 크게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민족우열론의 낡은 관점을 철저하게 불식하고, 동아시아문학사의 공통된 전개를 해명하고, 서양의 문학이론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세계문학 일반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동양의 문학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만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자는 데 있다. 한국의 한국문학 전공자들과 일본의 일본문학 전공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책을 읽고 이해하고, 가능하면 직접 교류하며, 더 나아가서 공동연구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것이 서로 유익하다고 인정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⁹⁾

9) 발표할 때 지명 트론자 中西進은 일본 학계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加藤周一과 小西基一의 저술을 들어 일본문학사 서술에서 일본문학의 특질만 중요시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의 주류인 동경대학의 일본문학 연구를 이끌어 온 芳賀矢--에서 久松潛--까지의 문학사에서도 일본문학의 특질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는 마찬가지이며, 문학사의 보편적인 전개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고, 加藤周一과 小西基一의 저술을 특별히 거론한 것은 그 두 사람만 남 다르게 일본문학 특질을 논했기 때문이 아니고, 일본문학의 특질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芳賀徵은 동아시아 각국 문학의 특질을 먼저 밝힌 다음에 보편성을 찾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까지 특질 우열론을 둘러싸고 그릇된 시비를 한 잘못을 시정하고, 동아시아문학사를 통괄해서 이해하고 서술하는 길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므로 지금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